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8과 예수님은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

[행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8과는 7과의 연속이다. 이미 7과에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이유를 공부했다. 오늘은 좀 더 보충 설명을 공부하려고 한다.

1.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지만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서 받아서 태에서 키워서 태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다고 성경이 계시한 것은 그 씨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에는 세 가지 사실이 있다.

1) 구주의 탄생= 여자의 후손

2) 구주의 고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함

3) 구주의 승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함

여자의 후손은 뱀 곧 사단을 멸망시킬 구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3:15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여자가 처녀라는 사실을 밝혀 예언한 것이다.

[갈4:4,5]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1:21-25]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계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수님은 처녀에게 탄생하셔서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아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명으로 생명의 씨가 되어 여자의 태를 빌려 탄생하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다.

[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셨지만 당신 자신의 생명이 씨가 되어 여자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아담이 죽을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재림하셔서 사단을 완전히 없이 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만일 그가 아담의 씨에 의하여 그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면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도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다. 이 세상 어떤 성인(聖人)도 종교의 창시자도 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일 뿐이다. 참으로 처녀에게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생명으로 탄생하지 않은 자는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의 후손일 뿐이다.

2.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으로 오셨다.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요일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담의 후손들을 해방시키고, 마침내 마귀를 없이하시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끝내신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3.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요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참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곧 참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고전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은 아담의 생명의 씨를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인 죄, 그런 죄가 없다. 또한 스스로 지은 죄도 없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인 죄인 사망이 아니시며, 그러므로 사망의 현상인 도덕적인 부패 현상 곧 도덕적인 죄도 짓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사실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죄가 없고, 도덕적인 죄도 없다.

[요일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벧전2:22]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망이 아니시며, 또 그가 세상에서 스스로 지은 죄도 없기 때문에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다.

[요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후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곧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4. 십자가의 피로 죄를 속하셨다.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 그는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렇게 아담으로 인한 죄 곧 사망은 처리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요일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벧전1:18,19]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라는 말이 계속 나타난다. 피는 생명을 온전히 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가 참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인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히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그의 참 생명이 죽음을 당하신 것을 확증한다.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죄인인 나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죄가 용서된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의 성질인 썩는 일을 그친다. 생명의 성질인 썩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흘리신 피와 뿌리는 피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리셨다. 그것으로 개인에게 속죄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그 피는 성소에서 뿌려져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하여서만 말한다. 그러나 그 피는 예수를 믿는 모든 개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마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11: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밋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벧전 1: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롬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계19:13,14]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것은 그를 믿는 개인들의 속죄를 확실히 이루신 속죄의 구주이심을 확인시키는 복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를 따른 자들은 예수님의 피 뿌리신 봉사로 깨끗한 흰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이제 모든 신자들은 사망이 다시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롬6:9-13]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후5:14-17]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인류의 구주시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

이다. 그들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아담의 죽은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아담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 아담이 죽고 없어져야 할 그것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담이 죽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구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소유하자.